

국회도서관 소장 筆寫本 《會眞演義》에 관한 小考*

張守連** · 閔寬東***

<目次>

I. 들어가는 말	1. 어휘 해석 형태의 다양성
II. 국회소장본 《會眞演義》 필사본 서지사항	2. 句節 解釋과 評語
III. 諺解, 註解와 評語의 특징	IV. 散譜 필사의 의미
	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西廂記》는 주지하듯이 元代 王實甫가 지은 대표적인 희곡으로 唐代 元稹의 《鶯鶯傳》을 모태로 생성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무려 100여종의 판본이 만들어 진 것을 보면 중국인들의《西廂記》에 대한 애정을 짐작할 수 있다.

《西廂記》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조선사회의 식자층에게 사실상 희곡이라는 장르는 익숙지 않은 것이었고 《西廂記》의 유입에 의해 비로소 그 형식이 전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입시기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1506년 연산군 기사에 사신에게 《西廂記》를 사오라고 명하는 기록을 볼 수 있어 대체

*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이다.(NRF-2010-322-A00128)

** 주저자 : 慶熙大學校 比較文化研究所 학연 토대연구 學術研究教授

*** 교신저자 : 慶熙大學校 中國語科 教授

로 이 시기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¹⁾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존하는 가장 이른 판본은 明 成化(1465~1487)년간에 판각한 것으로 추정하는 《新編校正西廂記》로 보는 견해와 1498년 弘治本 《奇妙全相注釋西廂記》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²⁾ 조선사회에는 1500년대에 왕실보의 판본이 유입되고 1700년대 중기이후에 김성탄의 批注本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³⁾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유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문헌 기록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정약용의 《陶山私淑錄》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당시 식자들 사이에 얼마나 유행하였는지를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近世才士秀儒，率未免拔跡於水滸傳西廂記等書。”(근래에 재자와 지식인들은 대개 《수호전》, 《西廂記》 등의 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⁴⁾

위 문장을 보면 수호전과 같은 사대기서와 같은 반열에서 서상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西廂記》가 조선사회에 유입된 이래 《西廂記》의 아름다운 曲文, 앵앵과 장생이 주고받은 詩 등에 감동한 조선의 지식인들은 《西廂記》를 인용한 詩들을 많이 창작하기에 이른다. 이외에도 1700년대와 1800년대의 《西廂記》에 관한 기록들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덕무의 《靑莊館全書》에서도 “足下知病之崇乎金人

- 1) 燕山 62卷, 12年(1506 丙寅 明 正德 1年) 4月 13日(壬戌): 傳曰: “《剪燈新話》, 《剪燈餘話》, 《效顰集》, 《嬌紅記》, 《西廂記》等, 令謝恩使質來.”(진교하기를, “《剪燈新話》, 《剪燈餘話》, 《效顰集》, 《嬌紅記》, 《西廂記》 등을 사은사에게 구해 오게 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DB참조.
- 2) 李昌淑, <西廂記의 조선 유입에 관한 소고>, 《大東文化研究》 제73집, 8쪽 참조. 《西廂記》, 선문대학교 중한 번역연구소, 2001년 해제 참조.
- 3) 閔寬東, <西廂記의 국내 유입과 판본 연구>, 한국중국소설학회, 《中國小說論叢》 31 2010, 141쪽 참조.
- 4) 《與猶堂全書》, 韓國文集叢刊 281, 471면. 李昌淑, <西廂記의 조선 유입에 관한 소고>, 《大東文化研究》 제73집, 17쪽, 참조.

瑞災人也 《西廂記》災書也.(죽하는 병의 근원을 아시는지요? 김인서는 재앙을 부르는 자이고 서상기 또한 재앙을 부르는 책입니다.)⁵⁾ 라고 하였다. 이처럼 《西廂記》로 인해 심신이 어지러워져 병이 날 지경에 이름을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당시 얼마나 《西廂記》를 즐기는 현상이 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보여 진다. 또 《熱河日記》에서 《西廂記》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있다. 수호전의 한 회목을 읽는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은 《西廂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박지원이 이미 《西廂記》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⁶⁾ 조선사회에서는 사대부 지식인뿐 아니라 규방의 여인들도 《西廂記》를 애독한 것으로 보인다.⁷⁾

조선의 독자들에게 소설과 희곡의 장르적 구분이 없었고 희곡 작품이라 해도 공연 양식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독본용 서사물로 인식되었다.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會眞演義》는 그 표제에서 보이듯이 바로 《西廂記》를 演義類로 즉 소설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국회 도서관에 소장된 《會眞演義》에 대해 고찰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西廂記》수용의 형태를 이해하고자 한다.

5) 4卷 二十, 朴在先齊家書一, 刊本雅亭遺稿, 205쪽 참조.

6) “有坐讀 <水滸傳>者, 衆人環坐聽之. 擺頭掀鼻, 旁若無人. 看其讀處則火燒瓦官寺, 而所誦者乃<西廂記>也.” 《熱河日記》, 渡江錄, 關帝廟記. 한국고전 종합 DB 참조.

7) “竹史主人 頗好集史水滸 漢演 三國志 西廂記 無不味翫. 而以至諺冊中 有可觀文 則雖閨門之秘 而不借者 因緣貫來. 然會一通 然後以爲決心 鑿錫竹下之史號因其宜矣. 竹史主人은 자못 사서 모으기를 좋아하여 《水滸傳》·《漢演》·《三國志》·《西廂記》에 흥미가 있었다. 諺書 중에 볼 만한 것이 있으면 비록 서책이 규방의 은밀한 곳에 있어서 빌릴 수 없는 것이라도 어떠한 인연과 연고를 만들어 내어 그것을 빌려 왔다. 그리고 한 번 그것을 讀破한 然後 오류를 바로잡기로 결심을 하였기에 竹下之史라는 호는 그 취지에 적당하다.” 민관동, 《中國古典小說批評資料叢考》, 학고방, 2003, 144쪽 참조.

II. 국회소장본 《會眞演義》 필사본 서지사항

국내에 소장된 《西廂記》관련 판본은 출판본, 필사본, 연활자본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중국 간본 《西廂記》는 108종, 필사본은 79종, 국내 출판 연활자본은 17종이나 된다. 거기다가 《西廂記》어휘에 관한 사전류라 할 수 있는 語錄類 들도 무려 17종이나 된다.⁸⁾

국회도서관 소장 《會眞演義》는 天·地·人 3冊으로 되어 있는 30.5×19.3cm 크기의 필사본이다. 《會眞演義》는 《西廂記》의 원문만을 필사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西廂記》에 관한 종합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西廂記》원문은 續篇이라 할 수 있는 제5본까지 수록한 완정본이다.

우선 天冊에는 金聖嘆의 序가 있고 이어서 일러두기에 해당하는 凡例가 나온다. 전체목록에 이어서 “第六才子書西廂文目錄”이 나오는데 “吳門唐伯虎先生 編次”라 되어 있고 약 25페이지 분량으로 《西廂記》의 내용을 회목에 해당하는 제목을 붙이고 20단락으로 나누어 적고 있다. “第六才子書西廂文目錄”은 다음과 같다.

怎當他臨去秋波那一轉
 待颺下教人怎颺
 隔牆兒酬和到天明
 我是多愁多病身怎當他傾國城貌
 筆尖兒橫掃五千人
 我從來心硬一見了也留情
 他誰道月底西廂變故夢裏南柯
 中間一層紅紙機眼疎檣不是雲山幾萬重

8) 《西廂記》국내 소장본에 관한 목록 자료는 유승현 선생님의 자료를 제공받았음을 밝혀 둔다. 필사본에는 원문필사본과 한글 번역 필사본을 모두 포함하였고, 국내에서 출판한 연활자본은 1912년 이전의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這叫做才子佳人信有之
 晚粧樓上杏花殘
 金蓮蹴損牡丹芽
 親不親盡在您
 難道是昨夜夢中來
 立蒼苔祇將繡鞋兒永透
 昨宵今日清減了小腰圍
 慘難情半林黃葉
 一寸眉心怎容得許多顰皺
 治相思無藥餌
 偷韓壽下頭香
 願天下有情的都成了眷屬

西廂文은 《西廂記》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지만 서사라기보다는 서정적인 관점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 1折 怎當他臨去秋波那一轉의 원문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美目盼芳情傳之矣。夫秋波最是幽情者也。沉轉於臨去時乎。當之者，將奚以爲情耶。若曰人之以情相感者乎，亦不自知其何心也。第情不可見，有顯然直露其裏者，而其情淺矣。乃情不可見有隱然微見其意者而其情轉深何也。當猝然邂逅之餘，而凝盼偶囑若欲傳，若不欲傳覽有往復流連者，令人一望而神馳也。已如子令之所見其人不知去哉。方其未也，未嘗先我去以心，而有不欲遽去者不啻傾心以相告傍觀，有所不知而身其際者已默爲喻矣。及其將去也，亦未明言其意而有不忍俱去者，一若寓意於目中，傳間猶多艷羨而歷其境者蓋難自持矣。(아름다운 눈을 흘기며 향기로운 정을 전하는구나. 무릇 촉촉한 눈매는 그윽한 정을 지닌 자이네. 하물며 떠나야 할 때에 이르러서 장차 정을 어찌하리오. 만약 사람이 정을 서로 느낀다면 또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네. 그 정이 현연히 직접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없으니, 그 안에 그 정이 얹은 것인가. 또한 정이 은밀하여 그 뜻이 모호하고 그 정이 얼마나 깊은지 볼 수 없네. 갑작스러운 해후를 한 여운이 서로를 응시하니 만약 전하고자 한다면 서둘러야 할 것이고, 만약 전하지 않을 뜻이면 다시 흘러가야하네, 바라보니 신이 내려온 듯하구나. 이미 내가 본 바가

그 사람이 가지 않은 것이라. 먼저 내가 마음으로써 가니 이어지고자 하지 않네, 가는 자 뿐 아니라 마음이 기울어 서로 고하고 곁에서 보니 알 수 없는 바가 있고 그 몸을 살피니 조용히 깨우치는 바가 있더라. 급히 가려 하니 또한 그 뜻을 말로 밝히지 못하고, 가고자 하니 건디기가 어렵네. 아름다운 눈 속에 그 뜻을 기탁하여 전하니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것을 경험 한자는 대저 스스로 주체하기가 어렵구나...)

이처럼 심금을 울리는 西廂文은 서상기의 내용을 아는 독자들이 그 감흥을 즐기는 또 다른 방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⁹⁾

西廂文에 이어서 西廂記考實, 讀西廂記法, 聖歎讀法四十三則摘要가 나온다. 그리고 會眞記를 수록하고서야 비로소 《西廂記》원문이 나오는데 한 페이지의 上欄 삼분의 일에는 吳山三婦의 評語를 쓰고 있고 下欄에는 《西廂記》원문을 필사하였다.

地冊은 《西廂記》卷5에서 卷6을 필사하고 있다. 人冊에서는 《西廂記》를 필사하고 이어서 《西廂記》 관련 詩들을 수록하고 있다.¹⁰⁾ 마지막 부분에는 元晩進王生 名未詳의 《圍棋闔局》이 下欄 삼분의 이를 차지하고 上欄에는 “第六才子西廂摘句散譜”가 있다.

《會眞演義》의 筆寫者, 筆寫시기에 관한 단서를 발견 할 수 없었다. 다만 필사의 원본이 된 것으로 보이는 간본을 찾을 수 있었는데 바로 《增註第六才子書釋解》이다.¹¹⁾ 이 간본은 金聖嘆 批點本에다 清代 吳山의

- 9) 국립중앙도서관 필사본을 보면 西廂文과 같은 형식의 것을 볼 수 있는데 “雲林別墅繪像妥註第六才子制藝醉心篇”이라고 되어 있다. 일종의 팔고문 형식으로 쓰여진 것은 西廂文과 같다. 그러나 회목에 해당하는 제목도 조금 다르고 西廂文은 20회로 되어 있는 반면 16회만 있다. 다시 말해서 16折까지만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판본을 필사한 동국대 필사본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서 이 西廂文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10) 會眞詩, 附古艷詩二首(元稹), 思詩五首(元稹), 古決絕詞(元稹), 贈雙文(元稹), 感事詩(元稹), 憶事詩(元稹), 夢遊春詞(元稹), 和微之夢遊春詩百韻(白居易), 題會眞詩五十韻(杜牧), 春詞酬元微之(沈亞之) 등이다.
- 11) 국내에는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서울대 판본은 善美堂藏 판본이다.

세 부인이 評語를 달았다는 合評本이다. 吳吳山三婦 즉 오오산의 세부인의 生平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이 없지만 《牧丹亭》을 批點하고 評點하였고 《牧丹亭》에 심취해서 唱을 하다 죽었다고 진한다.¹²⁾ 이 간본에 대해서 文漢命이 《三婦合評西廂記》가 있다고 하는데 보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한 바로 그 간본 인 것으로 보인다.¹³⁾ 그렇다면 문한명의 주해본이 쓰여진 1882년까지 국내에 合評三婦 간본이 유입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문한명이 보지 못한 것인지 명확한 근거는 알 수 없다. 필사자는 《增註第六才子書釋解》를 원본으로 하여 필사하면서 삽화는 빼버렸고 반면에 《西廂記》원문에는 諺解, 注釋, 評語 등을 달았다. 마지막 부분의 骰譜는 오히려 원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리고 파란색으로 채색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Ⅲ. 諺解, 註解와 評語의 특징

현존하는 필사본 중에서 같은 원전을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 동국대 필사본은 원래 목차를 살펴보면 西廂文은 빠져 있고 骰譜까지도 필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완질본이 아니라 단지 4권 2책만 남아 있다. 또한 三婦女合評本을 원전으로 필사하면서 삼부녀의 평어부분은 생략하고 원문만 필사하고 있는 점에서도 《會眞演義》와 다르다. 또한 어휘에 대한 풀이도 원문 윗부분에 적는 형태를 따르고 있다. 동국대 필사본은 단지 4折까지만 남아 있는데 註解를 보면 역시 《會眞演義》에 보이는 평어나 구절

12) 문한명 註解, 정용수 譯註, 《후탄선생정정주해 <西廂記>》, 국학자료원, 2006, 793쪽 참조.

13) “三婦合評西廂記, 世或有之云, 而遐士薄分, 尙未得見, 未知此三婦, 是誰家才女而能註此文耶.(《三婦合評西廂記》가 세상에 있다고 전하나 멀고 처지가 여의치 않아 여태 보지 못했다. 이 세 부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뉘 집의 재녀가 이런 문장에 주를 달 수 있었을까.” 문한명 註解, 정용수 譯註 《후탄선생정정주해 <西廂記>》, 국학자료원, 2006, 34쪽 참조.

풀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¹⁴⁾

동국대 필사본이 4折까지만 남아 있어서 그중에서 2折만을 가지고 동국대 필사본 《西廂記》, 《會眞演義》, 《艷夢漫釋》, 《西廂記語錄》을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다. 본래 2절은 《會眞演義》에서는 총 130개 《艷夢漫釋》에서는 총 108개에 관해서 註解를 달고 있다. 그중에서 공통으로 주해를 단 것이 46개이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부분은 두 텍스트 중에 한 곳에서만 註解를 달았다는 것인데 그 비율을 보면 거의 50%를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는 아래와 같다.

		會眞演義	동국대 필사본 西廂記	艷夢漫釋	西廂記 語錄
1	可憎才	이것저것 可喜之反辭	愛極之反辭	不曰可愛而曰可憎猶冤家之意蓋愛極之反辭也才猶物件也如秀才奴才이것저것之類	可憎: 愛極語可喜에엇부다
2	藕玉	親昵之意(친히 살핀다는 의미)		楊妃外傳唐明皇兄弟同處貴妃藕寧王紫玉笛吹之忤旨放出宮中妃泣曰衣服之外皆聖恩所賜惟髮膚父母所生令當就冤無以謝上引刀載髮以獻上見之驚惋遽使召回益嬖焉張佑詩梨花深院無人見問把寧王玉笛吹	
3	行雲眼睛	以吾嗜女之眼或脚打點載時相當		言眼睛流轉如行雲也	
4	打當	눈에 툇이다	相猶之意 눈의 썩니다	打點停當相值之意눈에썩이다	撞見也조켓다
5	在先	如前之人羞謊	猶在前	猶在前	
6	撩撥	戰戰兩頭		桃弄也韓愈詩無心思嶺北猿鳥莫相撩撥般大聲又히트러져	

14) 동국대 소장본 《西廂記》 참조.

7	輪轉	一旦撐結	古詩云心思不能言腸中車	古詩心思不能言腸中車輪轉又속이뒤석긴의스	
8	內養	養生之術		莊子達生篇軍豹巖居而水飲行年七十猶有嬰兒之色養其內也	
9	圓光	佛頭放光	佛頭上慧光	佛像肩背上神光所謂佛華也	
10	僧伽	大師		僧伽大師何氏西域人嘗濯足人飲其水痼疾皆愈後端坐而終建塔薦福寺中宗問萬迴禪師曰僧伽大師何如人耶迴曰觀音化身	
11	空囊	清白之名	虛名	虛名也又청념훈일흠詩話玩孚持一皂弗遊會稽客問囊中何物日但有一錢看囊恐其羞澁古詩空囊羞澁甚溜得一錢看	
12	和光	道德經		道德經和光同塵○渾俗和光與衆無異之意風清月朗與衆有異之稱句法是讚字法是嘲	
13	七青八黃	七青銀八黃金		格物論金成色七青八黃九紫十赤鍊愈精而色愈白	金品也아무분별모른단말
14	殼	足也		滿也弓矢持滿日殼	
15	香積廚	寺廚名		人稱僧舍廚曰香積	
16	枯木堂	禪房		釋迦如來偶至一所有枯木橫道匠者不顧佛令弟子界其木爲梁建寺其處經年不朽爲名	
17	靠	負也		依也	
18	大人家	大人之家	猶言士大夫家	讚辭猶言士大夫家	어 른 의 집
19	(大師)行	前也	郎前也	行即前也行者必前進故訓前	
20	淡淡拜了	남여시		恭謹貌남여시	
21	龐兒	민도리 態度 윈통이 全體	面也又態度 민도리	形容又態度也민도리又全體也윈 숨이又윈통이	
22	一套	一襲	何一襲一樣	一例猶一襲也	

23	鶻伶涿老	鶻伶涿老眼也송골이갓다 眼如鷹目精彩分明	鶻鷹屬涿老眼也言眼之明滢如鶻眼之伶俐也	鶻鷹屬水綠色而清曰涿眼之清澈似之故名眼爲涿老令教坊中猶然言娘眼之明滢如鶻眼之伶俐也俗稱女兒伶俐者必曰송골미갓다	眼光伶俐如鶻
24	撒上	녀올이다	演撒上속마음의 떡다	教坊市語놀녀올이다	撒：音殺擦俗字散之
25	老潔郎	老僧	老僧謂法本늙고조홀홀낭군이라	北人謂僧爲潔郎俗謂老和(貞)늙고조홀홀낭군	言老僧也
26	睽	贈眼		睽邪視也趁追逐也放豪光言眼光注射放明亮也눈쫓又기웃거리고눈쫓고홀쫓보다	睽趁：눈쫓어후리 단말 音拔
27	趁	追逐也			
28	打扮	裝束미미시	裝束	裝束也미미시	꾸미단말
29	(特來)晃	朝影얼은거리다	어른거리다	晃眩耀人貌어른거리다 又부리와후리다	
30	好模好樣	조흔모양		友辭조흔모양에	체면
31	(忒)莽慥	甚爲癡愚미우되갓다		魯莽愚直也미우되갓다	
32	煩惱(那)	답답		갑갑하다那語助	
33	唐三藏	有道之僧		玄(裝)法師姓陳往西域取佛經三藏經一藏律一藏論一藏共三十五音五千四十八卷因號曰三藏法師	唐三藏法師陳玄장
34	兒郎	男奴		奴稱也	男奴也
35	梅香	女婢		婢稱也	侍婢也
36	口强	能爲壯談	看强難言	不言也	말잘허단말이라
37	硬着頭皮上	頭堅不畏暴栗也打張生不如裡面坎쑥밤	硬着：栗暴也言商若口强不說出本事來我於頭上쑥밤쫓리라	言你在我前不言則我硬着爆栗於你頭上一雲頭皮能硬乎此盖抵觸長老使之激怒說出本事來即嶽仙明攻棧道暗取陳倉法	硬着：堅也귀어박어왕밤쫓다

38	怎生	어지면스라져 何也某條也	何也아못조 로	怎何也엇지면스라져	
39	偎傍	親近착디이다	偎:親近也	昵近依倚也착디이다	
40	殷	當也 솟치다		넉넉히	
41	索	只也	未也法也	求也	꼭
42	害(殺)	病也	病也	害病也殺쇄살 二音義皆通	害死也
43	待颺下	音揚 떨어바 리고져ㅎ다 颺以風飛物 也我之所懷 欲 颺棄也	待:欲也	待欲也風飛物日颺言欲丟開也 떨어브리고져ㅎ다又날니다	待:欲也
			颺下:猶掉 下也 떨어바 리고져ㅎ다		颺下:쑥 드러간단 말
44	赤緊	바드득 赤膚 也 살들게	赤心緊束살 들게又진득 言殷勤兒	赤心緊束也바드득又정단지一雲 殷勤	바드득참 으로
45	剛	풀풀ㅎ다		不柔順也풀풀ㅎ다	
46	(慢慢 地)想	숨숨싱각ㅎ 다 又실업시 싱각ㅎ다		숨숨싱각ㅎ다 又실업시싱각ㅎ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艷夢漫釋》의 풀이는 주로 단어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단어의 내원이 있는 경우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표에서 번호 2, 6, 7, 8, 12 등이다. 典故를 설명하거나 詩, 莊子, 道德經등 근원을 밝히고 있어 그야말로 《西廂記》어휘 사전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표에서 번호 2번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會眞演義》에서는 친히 살핀다는 속뜻에 대한 의미를 적고 있는 반면에 《艷夢漫釋》은 典故 내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西廂記語錄》의 풀이는 간단한 단어 풀이에 그치고 있는데 동국대 필사본의 경우도 2折 전체에 풀이한 어휘가 총 72개로 《會眞演義》의 130개에 비해 60%정도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국대 필사본은 완질본이 아니라 제외하면 《會眞演義》는 945개의 주해가 달려 있고, 《艷夢漫釋》은 1,178개, 《西廂記語錄》

은 538개의 어휘와 구절을 풀이하고 있다. 숫자상으로 보면 《會眞演義》는 《西廂記語錄》보다는 많지만 《艷夢漫釋》에 비해서는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會眞演義》의 필사자는 《艷夢漫釋》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주해를 달았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글풀이에 있어서는 《會眞演義》가 159개, 《艷夢漫釋》이 91개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會眞演義》에서는 단어뿐 아니라 구절에 대한 해석도 보이고 評語의 형태도 보인다. 어려운 한자에 대해서는 음을 표기 해주기도 했다. 《會眞演義》 주해의 특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어휘 해석 형태의 다양성

《會眞演義》는 《西廂記》에 대한 한글번역본은 아니지만 原文에 대한 諺解와 註解를 달고 있다. 《西廂記》어휘사전류인 《西廂記語錄》¹⁵⁾과 《艷夢漫釋》¹⁶⁾의 해석과의 비교를 통해서 필사자의 견해나 관점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독자의 수준을 고려한 듯 단어에 대한 諺解를 달고 있는데 형태는 주로 한글로 하거나 혹은 한글과 漢文을 혼용해서 풀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예1. 合方 흡족이
- 예2. 打當 눈에 툅이다
- 예3. 待颺下 ⇨ 言揚 떨어바리고져하다
- 예4. 赤緊的 ⇨ 바드득 赤膚也 살들게
- 예5. 慢慢地想 ⇨ 쏘쏘싱각하다, 실업시 싱각하다
- 예6. 小二哥 ⇨ 중놈이

15) 국립 중앙도서관 소장 筆寫本 《西廂記語錄》을 참조로 하였다.

16) 하버드대 옌칭 연구소(Harvard-yenching library) 소장 필사본을 참조로 하였다.

- 예7. 立地 ⇨ 서서
- 예8. 寃 ⇨ 원슈
- 예9. 慢俄延移 ⇨ 찬찬이 훑거러가, 徐而延拖也
- 예10. 剛張 ⇨ 풀풀하다
- 예11. 煩惱 ⇨ 답답
- 예12. 好模好樣 ⇨ 조흔모양
- 예13. 怎生 ⇨ 어지면 스라서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會眞演義》의 풀이를 보면 《西廂記語錄》과 《艷夢漫釋》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풀이하거나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예2. “打當”의 풀이를 《西廂記語錄》에서는 “撞見也조켓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艷夢漫釋》에서는 “打點停當相值之意눈에씩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예3, 예4, 예9 등에서 보듯 이 뜻이 諺解를 다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漢字로도 뜻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언해를 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어 자체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할 때 언해를 다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漢字로 바꾸어 설명하는 경우도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예1. 剃刀的和尙 ⇨ 剃髮度牒爲僧也
- 예2. 拈 ⇨ 撫也
- 예3. 壁 ⇨ 邊也
- 예4. 脚 ⇨ 足也
- 예5. 隨喜 ⇨ 遊玩
- 예6. 梵王 ⇨ 佛王
- 예7. 可憎 ⇨ 可喜之反辭
- 예8. 可正是 ⇨ 眞也承上文言

예1 부분에 대해서 《艷夢漫釋》에서는 “千里相衆曰和, 父母反拜曰尙”이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위 예문 1의 해석에서는 “和尙”을 “僧”

이라 하였는데 《艷夢漫釋》에서는 “친리에서 서로 모이니 和이고, 부모에게 물리나 질을 하는 것을 尙이다.”라고 하였다. 이 역시 의미를 다르게 풀이하는 예이다. 또 예2는 《艷夢漫釋》에서는 “取也以指取物”이라 하였다. 의미는 거의 같지만 다른 단어를 써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예5에 대해서는 《西廂記語錄》에서는 “卽聞耍구경”이라 하였고 《艷夢漫釋》에서는 “玩寺之稱 구경하다”라 적고 있다. 예8의 “可正是”에 대해 《艷夢漫釋》에서는 “恰好也”라 하였는데 《會眞演義》 필사자는 “眞也”라고 하면서 “위의 문장을 받는 말이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처럼 《會眞演義》의 필사자가 《西廂記》어휘사전류에 해당하는 《西廂記語錄》나 《艷夢漫釋》을 참고하였는지 아닌지를 단언 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자기 나름의 註釋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필사자가 단어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나 문맥상 그 구절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 경우에도 注解를 달고 있는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 보인다. 예를 들면 “我共你”에 대해서 “此是 紅娘” 즉 여기서 “你”라는 것은 “紅娘”을 의미한다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자의 뜻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독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注를 단 것이라 할 수 있다. “上”과 “下”과 같은 단어에 대해서도 “上”은 “上上戲場也中國人倣此事爲遊戲也以下倣此”라 하고 “下”는 “下下戲場也以下倣此”라 해석을 달고 있다. 또한 “哥哥”에 대해서는 “其人也”라고 문맥상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 《艷夢漫釋》에서는 “上”에 대해 “上升也餘倣此”라 풀이 한 것을 볼 수 있고, “哥哥”를 단지 사전적 의미인 “兄也” 하고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會眞演義》의 필사자는 《艷夢漫釋》의 해석에 비해 더욱 문맥상의 의미를 찾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본적으로 어려운 어휘는 아니지만 조선의 독자층에게 익숙지 않은 백화투의 언어나 방언인 경우 조선 지식인들에게 익숙한 漢字로 바꾸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這 ⇨ 此也
 小妮子 ⇨ 童婢
 厮 ⇨ 漢也
 好 ⇨ 最也
 俺 ⇨ 我也

2. 句節 解釋과 評語

필사자는 단어뿐 아니라 句節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종의 小註形態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難道我前世燒了斷頭香”에 대해서 “鶯非張愛則張之前世焚香祝願實難提說矣(앵앵이 장생을 사랑하지 않는 즉 전생에 향을 사르고 축원하니 실로 말을 건네기 어렵구나”라 하였다. “教人怎颺”에 대해서는 “使人何以棄之(사람으로 하여금 어찌 그것을 버리겠는가?)”라 풀이하고 있다. “你着懶殘紅芳徑軟步香塵底印兒淺”에 대해서도 “言殘紅所着之遙曾是軟軟而女兒輕踏之步痕深急着也.(떨어진 꽃을 밟고 가는데 여인의 발걸음은 본시 가벼워서 발자국이 희미한데 발자국이 깊다는 것은 급하게 발길을 재촉했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단어 풀이가 아닌 구절 전체의 의미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脚跟無線如轉”에 대해서도 “言足暫停而行矣猶恨長安之未速到也(발을 잠시 멈추고 가니 장안에 빨리 도착하지 못함을 한스러워 한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라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구절 풀이의 예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也合教俺夫妻每共卓而食”라는 구절에는 “卓牢也上聲即牛挂也婚禮婦至婿揖而入共卓而食(탁자를 둘러 싸다는 것은 즉 혼례를 치룬 부부가 함께 탁자에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會眞演義》의 필사자는 어려운 단어에 대한 언해나 주해, 혹은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문맥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할 때도 注를 한글 또는 한문으로 달았다. 이외에도 단순

한 필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評者의 시각에서 註釋을 한 評語라 볼 수 있는 예들도 보인다. 評語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과 감상을 적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疑是銀河落九天高源雲外懸(은하가 구천고원의 구름밖에 걸려있다는 의미이다)”이란 구절에 대해서 “文源甚高(문장의 근원이 심오하다)”이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艷夢漫釋》의 주석을 보면 “銀河”와 “九天”의 단어 뜻에 대해서만 적고 있다. 다시 말해서 ‘銀河’는 “天河也色白如銀(天河가 은처럼 하얗다는 의미이다)”이고 “九天”은 “中央鈞天東方蒼天東北昊天北方玄天西北幽天西方皓天西南朱天南方炎天東南陽天(중앙은 鈞天, 동방은 蒼天, 동북은 昊天, 북방은 玄天, 서북은 幽天, 서방은 皓天, 서남은 朱天, 남방은 炎天, 동남은 陽天)”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반면에 《會眞演義》의 필사자는 “문장의 근원이 매우 심오하다.”라고 하여 이 구절에 대한 감상을 적고 있다.

또 “乖性几何必有情木遂皆似此他自恁抹媚我却没三思一納頭只去樵悴死”이라는 구절에 대해서 “忽然說到自家身上妙甚趣甚”이라 하였다.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 문장이 매우 오묘하고 절묘하다고 감탄하고 있다. 《艷夢漫釋》에서는 乖性儿, 抹媚, 三思, 一納頭 각 어휘에 대한 해석만 보인다. 또 “我便安浮槎到日月邊”에 대해서는 《艷夢漫釋》에서는 이 구절의 연원에 관한 구체적인 故事에 대해서 설명 하고 있는 반면에 《會眞演義》에서는 “言文章既如是則必爲登科矣”라고 하였다. 이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필사자가 주인공이 반듯이 과거 급제 할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단순한 단어 풀이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적고 있는 것이다.

또한 “見五百年風流業冤”에 대해서 필사자는 “前世業冤也前生配匹也”라 적고 있는데 “전생의 원수고 전생의 배필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艷夢漫釋》에서는 “猶言尙冤家樂極之反辭又원슈”라고 단어의 의미에 치중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奈先相國在日張主云夫人却請住者”에는 “語未卒張生連先語也.”이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말을 마치지 않았는데 장생이 먼저 말한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小姐呵

你若知我害相思我甘心呪爲你死死(당신이 만약 내가 상사병이 난 것을 알아준다면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는 구절에 대해서 “感思知己得徒作情緣會也真(자신의 헛된 연정이 진짜라고 생각한다)”이라 풀이하고 있다.

“你知道是英傑觀着你化爲醜醬，指指教你變做醬血，骑着匹白馬來也。”이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以下叱卒子(이하는 하인을 질타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단어 해석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개괄하는 풀이를 적고 있다. “言今日之事皆在於我欲其放心速過去也”라는 구절에는 “紅言我擔著部署中不周山樣重大之事(홍량이 관아가 산처럼 중대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내게 말한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역시 구절이 지닌 속뜻을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필사자가 불교적 시각으로 작품을 보려한 경향이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梵王”을 “佛王”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데 이는 《艷夢漫釋》이나 《西廂記語錄》에서는 볼 수 없는 풀이이다. “聖賢”에 대해서도 “佛像”이라 풀이 하였는데 《艷夢漫釋》에서는 “北人稱神爲聖賢”이라 적고 있고 《西廂記語錄》에서도 역시 “北人神稱”이라 풀이하고 있다. 두 책에서 모두 北인들이 神을 일컫어 聖賢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필사자만 佛像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瞻仰”을 “拜佛”이라고 注을 단 것 역시 《艷夢漫釋》이나 《西廂記語錄》에서는 볼 수 없는 풀이이다. 다시 말해서 《會眞演義》의 필사자는 《艷夢漫釋》이나 《西廂記語錄》의 풀이와는 다르게 단어를 풀이하거나 더 세밀하게 한 구절에 대한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어휘 풀이를 넘어 필사자의 감상이나 생각이 들어간 評語를 달고 있다.

IV. 骰譜 필사의 의미

骰譜는 酒令遊戲의 일종으로 骰子라고하는 주사위를 던져서 승패를 정

하고 패자에겐 벌칙이 주어지는 놀이이다.¹⁷⁾ 특이한 점은 원래는 유명한 시인들의 詩를 암송하거나 韻을 맞추어 詩를 짓는 놀이였는데 희곡의 曲辭를 詩대신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한 희곡 전파의 효과를 가져왔다.¹⁸⁾

《西廂記》와 관련한 酒令이 여러 형태로 행해졌음을 여러 문헌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清代에 俞敦培의 《酒令叢鈔》 卷2의 기록에 의하면 “西廂曲貫衙門令”이라는 것이 있는데 西廂記의 曲文을 한 구절 읊고 이어서 官衙名을 대는데 上下 句가 반듯이 의미가 통해야 하는 것이다. 또 “月令貫西廂令”이라는 것은 먼저 《禮記·月令》중의 한 구절을 읊고 이어서 《西廂記》의 曲文 중에서 한 구절을 읊는데 역시 의미가 통해야 하는 것이다.¹⁹⁾

이러한 遊戲가 있었다는 것은 《西廂記》의 曲文이 얼마나 유행하였는가를 증명하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會真演義》 필사자가 《西廂記》의 原文이 아닌 骰譜까지도 아주 정성스럽게 필사한 것은 어느 정도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에도 酒令이 士大夫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고 中國의 酒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승정원 일기》 高宗 15년 무인(1878) 3월 12일 기사를 보면 縣令이 酒令에 빠져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상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 시흥 현령(始興縣令) 이기석(李起錫)은 상정(觴政)을 너무 지나치게 해 번번이 형장(刑杖)을 절도 없이 하였으며, 山麓을 강제로 빼앗아 책객(冊客)이 남의 땅을 차지하여 장사지내게 하였으니, 잘못을 저지른 일이 많고 쓰임새도 분수에 지나쳐 由吏(由吏)와 主色(廚色)에게 가하(加下)한 것

17) 劉初棠 著, 《中國古代酒令》, 上海人民出版社, 1993, 109-129쪽, 136-146쪽 참조.

18) 牧丹亭의 곡사를 酒令으로 만들어 연회에서 놀이로 즐겼고 당시 여성들의 오락 놀이로써 즐겼다고 한다. 王省民, 皺紅梅, <牧丹亭在民俗文化中的傳播>, 《民族藝術》 1, 2008.

19) 麻國鈞·麻淑云 編著, 《中國酒令大觀》, 北京出版社, 1993, 114-115쪽 참조.

이 1,300냥 정도나 됩니다.²⁰⁾

이외에도 《續東文選》에 의하면 산가지에 벌칙을 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이 폐한지 아마 오래라, 부서진 기왓장과 무너진 담장 밖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서로 더불어 개천가 돌 위에 앉아서 희롱삼야 酒榼을 만들어 벌을 표시한 산가지가 수북하도록 실컷 마시고 돌아왔다. 이날에는 인희(仁希)와 구공(具公)은 따라가지 아니하였다.²¹⁾

酒榼의 놀이 방법 중에 일종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기다란 막대기 모양의 나무나 혹은 뼈를 이용하기도 했다. 앞면에는 詩句나 曲辭의 한 구절을 적고 뒷면에는 벌칙을 적었다. 술을 마시면서 걸린 사람은 먼저 詩句를 읽고 그 뒷면에 있는 벌칙을 행해야 했다.²²⁾ 위에서 말하는 산가지가 바로 酒榼을 하기 위한 도구인 것을 알 수 있다. 《西廂記》를 이용한 酒榼 중에 “西廂記酒籌”이 있었는데 이는 백 개의 산가지를 준비하고 《西廂記》 曲文 중에 백 구절을 뽑아서 한 구절씩 새기고 曲文의 의미에 맞추어 술을 마시는 규칙을 정하였다.²³⁾ 예를 들면 만약 “將沒作有” 라는 曲文이 쓰여진 산가지를 뽑으면 “空杯者飲” 이란 규칙에 의해서 빈 술잔을 가진 자가 술을 마시게 된다. 《會眞演義》의 필사자가 필사한 骰譜는 아래와 같은 형태이다.

20) 상정(觴政)은 酒榼의 일종으로 상정이란 용어는 漢代 劉向의 《說苑》에서 이미 보인다고 한다. 麻國鈞·麻淑云 編著, 《中國酒令大觀》, 北京出版社, 1993년, 4쪽 참조. 전 양주 목사 신태운 등의 상별을 청한 경기 암행어사 이헌영의 서계에 대해 회계하는 이조의 계목. 한국 고전 번역원 자료 참조.

21) 제21권, 녹(錄), 유송도록(遊松都錄), 채수(蔡壽), 한국 고전 번역원 자료 참조.

22) 麻國鈞·麻淑云 編著, 《中國酒令大觀》, 北京出版社, 1993, 452-453쪽 참조.

23) 같은 책, 558-608쪽 참조.

●● 十	●● 層	●● 又
●● 裏	●● 兒	●● 在
●● 香	●● 紅	●● 巫
●● 雲	●● 紙	●● 山
●● 亘	●● 我	○○ 那
●●	●● 梔	○○ 廂
●●	●● 疎	○○ 借
●●		廂
王	陸	前
實	天	人
甫	池	

위의 형태는 바로 주사위를 이용한 酒令을 위한 骰譜이다. 여러 개의 주사위를 같이 접시 위에 놓고 흔들어서 나오는 면을 그리거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백색 원은 주사위 중에 홍색으로 표시한 것인데 그 면이 나오면 백색 원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에 해당하는 西廂記의 구절을 읊고 그 구절에 해당하는 벌칙을 행하는 유희이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주사위를 이용한 酒令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원은 《林下筆記》에서 중국의 骰子(주사위)의 연원과 놀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도 小骰戲가 있는데 중국에서의 놀이와 비슷하다고 하였다.²⁴⁾ 또한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주사위 놀이를 했던 기록

24) 李裕元, 《林下筆記》 제34권, 화동옥삼편(華東玉糝編) 주사위는 본래 위(魏)의 진사왕(陳思王 조식(曹植))이 만든 것인데, 사기를 구워서 만든 것이다. 《설부(說郛)》에 이르기를, “박투(博投)는 본래 질박하게 만들었는데, 당나라 때에 와서 뼈를 파서 구멍을 내고 거기에 주묵(朱墨)을 섞어서 칠한 다음 다시 붉은 상사자(相思子)를 취하여 구멍 속에 넣었다. 지금 주사위는 네 개의 구멍 위에 붉은색이 가해졌는데, 역시 본받은 바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언청(言鯖)》에는 이르기를, “당나라 때의 투경(投瓊)은 한 점만 붉은색을 칠하고 나머지 다섯 점은 모두 검은색을 칠하였다. 이동(李洞)의 시구에 ‘여섯 개의 붉은색은 도장을 던져 놓은 듯(六赤重新投印成)’이라는 말이 있다. 또 혈격(穴骼)이라 이름하고, 혹은 명경(明瓊)이라고도 하며, 혹은 투자(投子)라고도 하는데, 대개 투척(投擲)의 뜻을 취한 것이다. 남당(南唐) 때 의조(義祖) 앞에

을 볼 수 있다. 成宗 18년(1487)의 기사에 의하면 “上以便服, 御昌慶宮仁陽殿觀攤, 宗宰入侍. 出馬粧、角弓、理馬諸緣毛坐子等物, 命侍臣擲大獵圖骰子以賭之.” (왕이 편복차림으로 창경궁 인양전에 나가 나희를 구경하는데 중재가 입시하였다. 마장, 각궁, 말 안장 등 물건을 내오고 신하에게 명하여 대렵도에 주사위를 던져 내기를 하였다.) 라고 하였다.²⁵⁾ 또 주사위를 가지고 하는 박희나 저포라고 하는 놀이가 있었다. 저포는 주사위 다섯 개를 가지고 다섯 투자를 한 번 던져서 모두 백색이 나오면 이기는 것이었다.²⁶⁾ 서거정의 《四佳詩集》 卷之二十二〇第十五 에서도 “供閑有棋博. 骰子手長拈”이라는 구절을 볼 수 있다. 한가할 때에 주사위를 가지고 내기 놀이를 하면서 주사위를 한참동안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또 성현의 《虛白堂詩集》에 “乾鷄骰子徐徐擲. 秋露磁杯細細斟”라 하여 주사위를 던지고 술을 마시는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조선의 사대부 지식인이나 궁중에서도 주사위를 이용한 酒榭를 즐긴 것을 알 수 있다.

필사자가 骰譜까지 필사한 것은 당시 조선의 《西廂記》 독자층이 酒榭이라는 놀이를 즐긴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이 부분은 삽화처럼 생략하고 필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독자층이 《西廂記》의 曲文을 가지고 놀이를 즐

서 박희(博戲)를 하면서 여섯 개의 주사위를 손에 거머쥐고는, ‘정말 지지 않으시려거든 공은 한 번 던져서 모두 붉은 면이 나오게 하시오.’ 하였는데, 주사위를 던지자 과연 여섯 개의 주사위가 모두 붉은 면이 나왔으니, 이른바 육홍(六紅)이다.”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소투희(小骰戲)가 있으니 12조각에 2·4·7은 붉은색으로 만들고 상격(上格)이라 칭하는데, 위의 놀이에 가깝다. 한국고전 DB 참조.

25) 成宗 210卷, 18年(1487 丁未 / 명 성화(成化) 23年) 12月 29日(甲午) 1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 DB 참조.

26) “弟姪携樽酒. 開筵慰老夫. 脫巾露蓬頂. 擲骰叫樗蒲. 非伏三尸票. 聊爲一夜娛. 隣鷄亂啁啾. 缺月掛牆隅” 성현(成倪)의 《虛白堂詩集》卷之八 男世昌編集. 또 《良齋先生續集》 卷之四, 古文前集質疑에 보면 “骰子五者皆白則勝. 故擲者呼而祝之. 梟盧. 必五白之一. 而梟其勝名也.”라 하였다. 한국고전 DB 참조.

겼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V. 나오는 말

조선시대 《西廂記》는 희곡의 텍스트가 아닌 독본용으로 수용되고 통용되었다. 한글 번역본에도 보면 유명한 부분의 詩는 漢文을 병기한 것을 볼 수 있다.

《西廂記》의 대중성 확보는 曲文의 아름다움에 기인하였고 조선의 《西廂記》 독자층은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어휘를 연구하고 풀이한 사전을 만들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西廂記》 텍스트의 유행을 더욱 독려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회도서관 소장 필사본 《會眞演義》는 우선 제목에서 보이듯이 조선시대 독자들의 《西廂記》에 대한 이해가 소설적 인식으로의 접근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또한 필사의 과정에서 단순히 刊本을 그대로 筆寫한 것이 아니라 筆寫者가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단어를 풀이하거나 구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휘 사전이라 할 수 있는 《艷夢漫釋》이나 《西廂記語錄》의 풀이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해석하거나 다른 의미로 풀이하는 예들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필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을 적은 評語의 형태도 보인다. 거기다가 韻譜까지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필사한 것은 당시의 《西廂記》독자들이 《西廂記》를 읽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처럼 하나의 놀이 문화로써 수용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필사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사가 유행한 1890년 이후일 것으로 생각된다.²⁷⁾ 또한 과연 누가 필사를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영리를 위한 필사라기보다는 《西廂記》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대부집안의 여인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세책본의 경우는 필사에 관련된 정보가

27) 이민희 지음, 《조선의 베스트셀러》, 프로네시스, 2007, 49쪽 참조.

남아 있을 것이다. 동국대 필사본의 경우에도 “光武三年十二月日製錦堂畢書 完山後人李明夏 弄筆”이라하여 필사시기가 1899년이고 完山後人李明夏라는 사람이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會眞演義》는 조선 사회 《西廂記》 독자층의 인식과 해석, 수용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 국회도서관 소장 筆寫本 《會眞演義》
하버드대학교 연칭 연구소 소장본 《艷夢漫釋》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筆寫本 《西廂記》
안동대학교 도서관 소장 筆寫本 《西廂記》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소장 筆寫本 《西廂記》
국립 중앙도서관 소장 筆寫本 《西廂記語錄》
국립 중앙도서관 소장 筆寫本 《懷永堂繪像第六才子書西廂記》
단국대학교 육곡 도서관 소장 대산서림본 《演譯西廂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木版本 《合訂西廂記文機活趣全解》
경희대학교 도서관 소장 木版本 《增註第六才子書釋解》
문한명 註解, 정용수 譯註, 《후탄선생정정주해 《西廂記》》, 국학자료원, 2006.
이민희 지음, 《조선의 베스트셀러》, 프로네시스, 2007.
金曉民, <朝鮮讀本 西廂記의 異本 실태 및 유통 양상>, 《中國語文論叢》 46, 2010.
閔寬東, <西廂記의 국내 유입과 판본 연구>, 한국중국소설학회, 《中國小說論叢》 제31집, 2010.
강동엽, <이가원 역주 《西廂記》에 대해서>, 《淵民學志》 13, 2010.
李昌淑, <西廂記의 조선 유입에 관한 소고>, 《大東文化研究》 73, 2011.

- 尹寶卿, <한국 근대시기 현토본 중국소설 간행 연구>, 한국중국소설학회, 《중국소설논총》 33, 2011.
- 麻國鈞, 麻淑云 編著, 《中國酒令大觀》, 北京出版社, 1993.
- 劉初棠 著, 《中國古代酒令》, 上海人民出版社, 1993.
- 金小曼 著, 《中國酒令》,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1.

<中文提要>

《西廂記》流傳到朝鮮之前, 在朝鮮知識分子階層當中, 戲曲是一個陌生的文體。其實可以說通過《西廂記》朝鮮知識分子階層才能接觸中國戲曲, 但是當時他們也許把《西廂記》看做一部小說, 而不是一部戲曲。

從文獻的記載可見, 《西廂記》在朝鮮流傳的時期, 最早于1506年。到了18世紀流入金聖歎批評版本, 比以前更加流行。在韓國現在收藏的《西廂記》版本就有好多種類。木板本, 寫本, 沿活字本等等多樣的形態都存在。根據目前調查來看, 國內收藏木板本是一共108種, 寫本是79種, 國內出版本是17種。由此可知, 在朝鮮時代《西廂記》曾廣為流傳。另外, 朝鮮知識分子階層採取了多種多樣的方法來接受和繼承了《西廂記》。韓國國會圖書館所藏的寫本《會真演義》也是一種《西廂記》寫本。這部寫本《會真演義》沒有有關寫者和書寫年代的資料, 因此不能確定是什麼年代的寫本, 但是從書上出現的韓文來推斷大概應是朝鮮末期的寫本。筆者認為《會真演義》具有如下幾個意義。

首先, 可以注意到《會真演義》的書名裏用到“演義”, 換言之, 朝鮮知識分子階層是把《西廂記》當成了一種小說來看, 因此, 他們把《西廂記》稱為“演義”。其次, 《會真演義》裏出現了骰譜, 可見當時朝鮮知識分子階層已經了解這種酒令遊戲。否則就會將骰譜跟插圖一樣刪掉了。然而《會真演義》裏不但有骰譜, 還認真細致地打了個圈, 這就證明當時已經知道骰譜是什麼, 有什麼用途。實際還可以查到有關骰子遊戲的其他文獻資料, 從此

可見，跟中國一樣，當時朝鮮知識分子階層中流行酒令遊戲。

寫本《會真演義》的原版本是《增注第六才子書釋解》。《會真演義》的寫者除了插圖以外，按照原版本的順序來筆寫，並以《西廂記》原文中多樣的方式來注解。根據寫者的注解可以推測出寫者的意圖和觀點。與其他有關《西廂記》的詞典，比如《西廂記語錄》和《豔夢漫釋》的注解比較起來，《會真演義》的寫者在解釋同一字時，會用別的字來解釋，甚至可以看到完全不一樣的解釋，尤其可見有關思想和感想的評語，這是別的詞典當中幾乎沒有的。可以說這就是《會真演義》的價值，通過評語可以推測寫者的意圖，那就是是爲了讀者，尤其是爲知識水平不太高的讀者來注解的。因此，在《豔夢漫釋》裏常見的很多有關詞彙的典故和故事等等，在《會真演義》的注解當中幾乎沒有看到。

總之，把三個婦女合評的版本寫出來，而且《會真演義》的寫者爲了更加容易理解《西廂記》內容加了注解。由此，我們可以推測也許《會真演義》的寫者是個知識女性，而且是位非常喜愛《西廂記》的讀者。從韓國國會圖書館所藏寫本《會真演義》我們能推測出朝鮮時代對《西廂記》讀者階層的認識，解釋和接受形態。

주제어 : 會真演義, 西廂記, 筆寫本, 板本, 수용양상

